

치 사

한 해를 돌아보는데 훈훈함이 더하니 추운 절기를 다독이는데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사다난의 시간과 더 잘해야 했다는 아쉬움이 한편에 있지만, 서로의 격려가 주는 잔잔한 감동이 마음의 선율로 흐르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모두가 서로의 공덕을 나누는 시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불교음악인들을 위한 ‘불교음악상’ 제정과 제1회 시상이 갖는 의미는 한 해를 따뜻하게 위로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듯합니다.

천상의 음악이 울렸다는 경전의 말씀처럼 부처님의 탄생과 출가, 그리고 열반시에는 항상 음악이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불교음악은 소리와 소리 없는 영역에 이르기까지 무한히 넓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성을 찾겠다는 간절하고 때로는 막막한 정진의 길에서, 모든 현상이 갖는 소리는 구도자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소리를 근간으로 하는 불교음악이 소리에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향이 느껴지는 연유도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대방을 통해 나를 바라보듯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추어 보이는 불교음악이 더욱 발전하고 앞으로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불자의 기대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교음악상이 갖는 의미는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엄숙하게 경청하는 것에서 이제는 대중이 함께 할 수 있는 불교음악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 것은, 불교음악인의 당면한 과제이면서

도 천년이 넘는 전통 음악을 자연스러우면서 품위있게 계승 발전하게 하는 뜻 깊은 불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덕을 함께 나누는 수상자 여러분과 어려운 환경에도 묵묵히 진력하는 불교음악인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부족함을 포근하게 채우고 덮어주는 눈처럼, 불교음악이 현대인의 마음을 투명하고 맑게 해주기를 발원합니다.

불기2556년 12월 1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